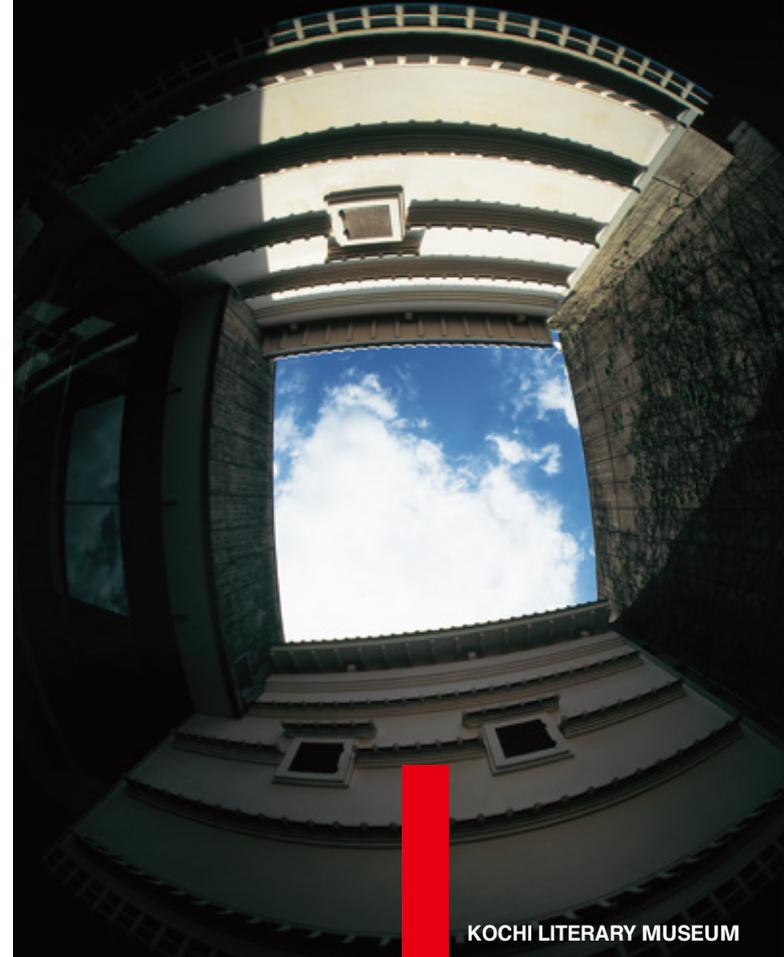


고치현립문학관



고치현립문학관 안내

남쪽의 웅대한 태평양과 북쪽의 험준한 시코쿠 산지에 둘러싸인 난코쿠 도사(고치현).이 독특한 풍토에서 성장한 여러 문학인은 일본 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고치의 작가들이 탄생시킨 여러 작품은 도사 지역의 역사와 풍토를 내포하여 고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특색을 갖췄습니다.

고치 현립 문학관은 이러한 여러 작가와 고치에 연고를 둔 작가의 문학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전시 등을 통해 문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7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상설전시에서는 여러 우수한 고치의 문학인에 관한 내용을 '고전 문학·근세 문학' '자유민권운동과 문학' '반골의 대중 문학' '현대 문학' '근현대 시가' '고치와 연고가 있는 작가들' '미야오 문학의 세계' '데라다 도라히코 기념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테마가 바뀌는 '기획 코너' 등 시대와 테마에 따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화와 아동 문학을 중심으로 한 '모두 모여라! 어린이 문학실'이 있습니다. 고치와 인연이 있는 아동서와 도사 민화의 일인자인 이치하라 린이치로의 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든 민화 종이 연극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외의 뛰어난 문학을 소개하는 기획전과 문학 강좌 등의 개최, 출장 강좌와 레퍼런스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문학의 매력을 전하고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치의 문학인들' 전시장 입구



'미야오 문학의 세계'

데라다 도라히코 기념 전시실



이용 안내

개관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휴관일 연말연시 (12월 27일~1월 1일)
*그 외 유지보수 등으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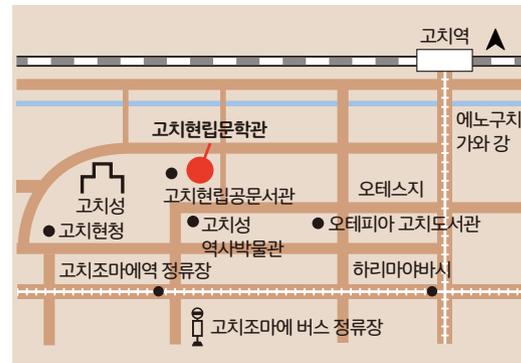
관람료 ●기획전 개최기간(상설 전시 포함)...기획전별로다릅니다.
●기획전을 개최하지 않는 기간(상설 전시만)...일반 400엔

- 20명 이상 단체는 20% 할인
- 고등학생 이하 무료
- 신체장애 수첩, 요육 수첩, 정신장애 보건 복지, 전상병자 수첩, 피폭자 건강 수첩을 소지하신 분 또는 그 개호자(1명), 고치현·고치시 장수 수첩을 소지하신 분은 무료
- *표사는 곳에서 수첩 등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없음 *근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대여 기획 전시실, 홀, 차실 '경운암'

교통안내 •도사덴 교통 버스·노면전차'고치성 앞'역에서 도보 5분
•JR 고치 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도사덴 교통 버스·노면전차를 이용)
•고치료마공항에서 공항연락 버스 '기타하리마야바시' 정류장에서 도보 20분



문학관 캐릭터
시오리&핏타



〒780-0850
高知県高知市丸ノ内1丁目1-20
전화 088-822-0231 FAX 088-871-7857
e-mail bungaku@kochi-bunkazaidan.or.jp
https://www.kochi-bungaku.com
(운영:공익재단법인 고치현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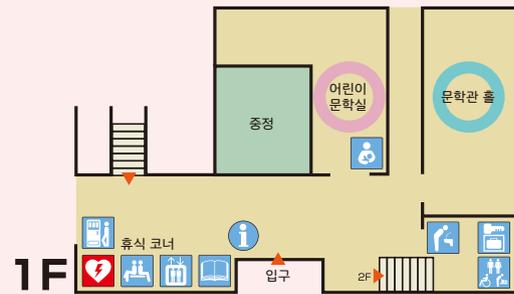
2025.6



- 엘리베이터
- 화장실
- 안내소

2F

- 수유실
- 자동판매기
- AED
- 휴식 코너
- 엘리베이터
- 뮤지엄 샵
- 접수
- 음수대
- 코인 물품 보관소
- 다목적 화장실



1F

'모두 모여라! 어린이 문학실'



도사의 민화에는 평온한 난코쿠의 풍토 속에서 유쾌한 이야기와 개성적인 요괴가 등장합니다.또한, 고치에서는 다지마 세이조와 다지마 유키히코를 비롯한 여러 아동문학 작가가 탄생하였습니다.계승해 나가야 할 민화의 세계와 아동문학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홀



차실 '경운암'

상설 전시 고치 현과 문학인들

고전 문학·근세 문학

●도사일기 기노쓰라유키 (미상~945년)

《도사일기 土佐日記》는 930년 도사가미 직책에 임명된 쓰라유키가 임무를 마친 934년 연말 귀경길에 일기 형식으로 여성처럼 가나로 적은 작품입니다. 가을을 섞어가며 도사 지방에서 잃은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애환과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고잔 문학 기도 슈신 젓카이 주신

고다이산 규코안의 젓린 문학은 14세기 및 15세기 도사 문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규코안의 창립자가 무소 소세키입니다. 기도는 젓카이와 함께 무소의 법사(法嗣)이며 고잔 문학의 최고봉으로써 규코안의 시를 남겼습니다. 젓카이 또한 고잔 문학의 정점에 있는 선승 시인으로 명나라 유학 중 고향제로부터 화운의 시를 하사받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기도 슈신 (1325~1388)



젓카이 주신 (1336~1405)



카모치 마사즈미 (1791~1858)

●카모치 마사즈미

《만엽집 萬葉集》에 바친 인생의 대집성 《만엽집고의 萬葉集古義》는 사망 후 메이지 천황의 하사금으로 출판된 독창적인 주석이 많이 담긴 만엽집 연구의 대저(大著)입니다.

자유민권운동과 문학

자유민권운동은 메이지 시대 초기의 전체 정치를 배척하고 국회와 헌법을 만들어 정치적 자유와 민권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으로 소설·신체시·평론·와카·하이쿠 등 폭 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학 작품이 탄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유는 도사 산간에서 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유민권운동 문학은 고치 지역 사람들의 손을 거친 것들이 여럿 남아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미야자키 무류의 《불란서혁명기 자유의 개가 自由の凱歌》, 나오키 에모리 《자유시림 自由詞林》, 사카자키 시란 《한혈천리구 汗血千里駒》, 나카에 초민 《삼취인경문답 三醉人經綸問答》이 있으며, 이러한 문학을 계승한 것이 고토쿠 슈스이·다오카 레이온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무류 (1855~1889)



나오키 에모리 (1857~1892)



사카자키 시란 (1853~1913)



나카에 초민 (1847~1901)



고토쿠 슈스이 (1871~1911)



다오카 레이온 (1870~1912)



근현대의 시가



오카모토 야타 (1899~1942) | 마키무라 히로시 (1912~1938) | 가타야마 도시히코 (1898~1961) | 우에다 아키오 (1899~1995)



오에 미츠오 (1906~1991) | 시마자키 아케미 (1907~1963) | 하시다 도세이 (1886~1930)



기타미 시호코 (1885~1955) | 와카오 란스이 (1877~1961) | 하마다 하세이 (1870~1923)

고치의 근현대 시가(詩歌)는 1920년대 오카모토 야타 등이 참여한 잡지 <굴고다>, <여시선>, <청기병> 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 마키무라 히로시 등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

시인들도 파시즘에 대항하는 뛰어난 시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가타야마 도시히코, 우에다 아키오의 로맹 롤랑과의 교류, 주지적인 시와 평론, 번역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에 미츠오의 시만토 강에 대한 망향의 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시마자키 아케미 등은 중국 동북부(만주)에서 고치의 풍토와 다른 풍토의 시를 남겼습니다.

하시다 도세이와 기타미 시호코는 만엽의 전통을 잇는 작품으로 근대 단가(短歌)에 발자취를 남겼고, 와카오 란스이, 하마다 하세이는 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관을 따르며 고치의 근대 하이쿠의 길을 열었습니다.

고치에 연고가 있는 작가들



요시이 이사무 (1886~1960) | 이부세 마사지 (1898~1993) | 오오카 쇼헤이 (1909~1988) | 시바 료타로 (1923~1996) | 다카하시 코시 (1874~1959)

요시이 이사무는 가미시 가호쿠초 이노노에서 운둔 생활을 함. 단가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등 고치는 재생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부세 마사지는 인생의 애환이 담겨있는 주옥같은 단편 《헨로 야도 へんろ宿》와 나오키상 수상작인《존 만지로 표류기 尊万次郎漂流記》등 고치와 관련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오오카 쇼헤이는 역사를 문학으로 승화시킨 배대가가 잘 갖추어진 역사소설로써 높은 평가를 받는 장편 소설 《민추구미 天誅組》《사카이 항구 양이 살인사건 堺港攘夷始末》발표했습니다.

시바 료타로는 《료마가 간다》《공명의 갈림길》《나쓰쿠사노후 夏草の賦》등 도사(土佐)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고치를 자주 방문하여 명에 고치 현민으로서 많은 주민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다카하시 코시는 고치를 두 번 방문하여 고치의 하이쿠 계에 큰 자극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골의 대중 문학

고치 출신의 대중 문학 작가는 크게 탐정소설가와 대중 소설가의 두 계열로 나뉘며 각 계열의 중앙 단단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들의 작품의 공통점은 파사현정의 반골 정신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구로이와 루이코 (1862~1920)



다나카 고타로 (1880~1941)



하마모토 히로시 (1890~1959)

구로이와 루이코는 <만조보 万朝報>의 경영에 성공하여 '신문왕'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여러 외국 탐정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오마치 게이게츠는 《미문문화화염 美文韻文花紅葉》으로 주목을 받으며 강경파 평론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술과 여행을 사랑하였고, 아오모리현의 쓰타 온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다나카 고타로는 《선풍 시대 旋風時代》로 성공하여 대중 소설 분야에서 한 시대의 획을 그었고, 월간 수필 <박랑사 博浪沙>를 통해 이부세 마사지, 다오카 노리오, 하마모토 히로시 등의 작가를 길러냈습니다.

다오카 노리오는 도사 무사의 마음을 기미(機微)하게 그려내어 1943년에는 나오키상을 수상. 만년가의 대작에는 《소설 노나카 겐잔 小説野中兼山》이 있습니다.

하마모토 히로시는 잡지<카이조 改造>기자에서 대중작가가 되어 《아사쿠사의 등불 浅草の灯》《여순 旅順》등의 역작을 발표했습니다.

바바 고초는 <문학계 文学界>를 중심으로 활약. 히구치 이치오와도 교류하였으며, 대륙문학을 중심으로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모리시타 우몬은 <신청년 新青年>의 초대 편집장으로서 에도가와 란포 등을 발굴한 일본의 탐정 소설 육성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마치 게이게츠 (1869~1925)



다오카 노리오 (1908~1982)



바바 고초 (1869~1940)



모리시타 우몬 (1890~1965)

현재의 작가

야마모토 이치리키 (1948~)는 《꼭두서니 하늘 아가네空》로 나오키상 수상.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려 인정이 넘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시마오카 신 (1932~)는 《건배 乾杯》로 오구마 히데오상 수상.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평론과 사전(史伝)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시미즈 타츠오 (1936~)는 '시미즈부시(志水節)'라고도 불리는 예리한 문체로 하드 보일드 작품과 시대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아리카와 히로 (1972~)는 《현청 오모테나시과 県庁おもてなし課》《도서관 전쟁 図書館戦争》시리즈 등으로 폭넓은 연령층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니시자와 야스히코 (1960~)는 《연설 聯聲》등 미스터리와 SF 요소를 합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히사코 (1947~)는 <스마다강 어용첩 隅田川御用帳> 시리즈 등 인정이 넘치는 시대 소설의 명수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타케나카 메구미 (1959~)는 <샤베게 しゃべげ> 시리즈 등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카와키 하쓰에 (1974~)는 고등학생 시절 <물고기처럼 魚のように>으로 데뷔하였고, 《너는 착한 아이야 きみはいい子》등을 집필하는 한편 옛날이야기 낭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루이 (1949~)는 하이쿠 애호회 '후네'를 주재. 술집 시인이란 별칭이 붙여 TV 방송에서도 활약. 쓰지도 카이 (1948~)는 <바람의 이치베 風の市兵衛> 시리즈 등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검극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학



다나카 히데미쓰 (1913~1949)



간바야시 아카스키 (1902~1980)



고야마 이토코 (1901~1989)



야스오카 쇼타로 (1920~2013)



구라하시 유미코 (1935~2005)

다나카 히데미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 경험을 적은 《올림포스의 과실 オリムポスの果実》로 데뷔. 만년에 무뢰파(無頼派) 작가로 불리게 됩니다.

다카쿠라 데루는 민중을 위한 문학을 지향하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작가로 대표적으로는 《하코네 용수 箱根用水》가 있습니다.

간바야시 아카스키는 가족과 자신의 질병과 싸우면서도 문학에 대한 집념을 관철시켜 《성 요하네스 병원에서 聖ヨハネ病院にて》등 병든 아내 이야기로 문단에 입지를 굳혔습니다.

다미야 도라히코는 어두운 시대와 자신의 체함을 뛰어난 역사 소설과 사랑의 문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고야마 이토코는 여성의 삶을 정면에서 휴머니즘이 충만한 작품으로 그려낸 나오키상 수상 작가입니다.

오하라 토모에는 《'엔'이라는 여자 婉という女》를 비롯하여 시대와 운명에 휘둘리면서도 곳곳에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야스오카 쇼타로는 날카로운 비평관과 풍부한 유머 감각을 가진 <제3의 신인>의 기수로서 전후 문단에 참신한 충격을 준 아쿠타가와상 작가입니다.

기요오카 다카유키는 날카로운 감각과 깊은 사고를 가진 시인으로 아쿠타가와상 작가입니다.

구라하시 유미코는 《파르타이 バルタイ》 신선했던 데뷔를 한 뒤 지적이고 냉정한 시점과 독특한 문체로 작품을 발표. 번역 실력도 뛰어난 작가입니다.

반도 마사코는 주로 토속적이고 기괴한 소설을 발표했으며 《사국 死國》《구신 狗神》등 시코쿠와 고치를 무대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데라다 도라히코 기념실

물리학자이자 수필가. 부모가 고치현 출신으로 본인도 소년기를 고치에서 보냈습니다. 물리학자로서 X선과 방재 연구를 하였고 '자연재해는 잊었을 때 찾아온다'라는 말로도 유명합니다. 나쓰에 소세키에 의해 문학적 재능을 찾게 된 도라히코의 수필은 과학자의 관찰·발견·분석 능력과 시인의 직관·연상·시정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수필의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데라다 도라히코 (1878~1935)

미야오 문학의 세계

고치시 출신. '수직기로 짠 면이나 명주와 같다'고 평가받는 작품인 《노 권》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서 일본 특유의 풍토와 인습(因習)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나오키상 외에도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미야오 토미코 (1926~2014)

<작가 사진 안내> 카모치 마사즈미...당관귀탁 | 오하라 도미에...오하라 도미에 문학관 소장 | 반도 마사코...개인 소장
 하마모토 히로시...B.M.Booth, Major, 1952 | 야스오카 쇼타로...제공 : 가나가와 근대문학관 | 시바 료타로...제공 : 시바 료타로 기념관 | 활영 : 이노우에 히로미치
 간바야시 아카스키...간바야시 아카스키 문학관 소장 | 구라하시 유미코...@Shinchosha | 미야오 도미코...'신간 뉴스' 1979년 4월호(토한)에 게재한 '나의 근황' 중에서